

지구촌비전

Vol. 307
2025. 11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02

이달의 메시지
화목의 기술

19

특집
BLESSING 블레싱2025
전도이벤트

46

특집
2025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76

식탁에 내리는 단비
허니 갈릭 오렌지 치킨

78

의학상식
면역항암요법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다



민들레

글 | 연규흠 권사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로수 아래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메마른 콘크리트 틈새로
민들레 작은 새싹이 움텄다.

때로 비바람이 지나가며
온몸을 흔들었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버티더니
눈물처럼 고운 이슬을 머금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햇살을 바라보며
금단추처럼 빛나는 꽃을 피워 냈다.

세상은 무심한 듯
그 작은 꽃을 지나쳤지만
행여 지쳐서 쓰러질까,
풀벌레의 노래를 들려주고
구름과 안개로 부드러운 빛으로 만들어 주며
사랑을 심어주신 그분을 위해
민들레, 찬란한 영광을 담아놓았다.

갈 곳 잃은 마음의 틈새마다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길 기도하며 **지구촌**



표2 마음으로 읽는 시

민들레

2 이달의 메시지

화목의 기술

8 이달의 칼럼

모두에게 필요한 목장교회

10 내 평생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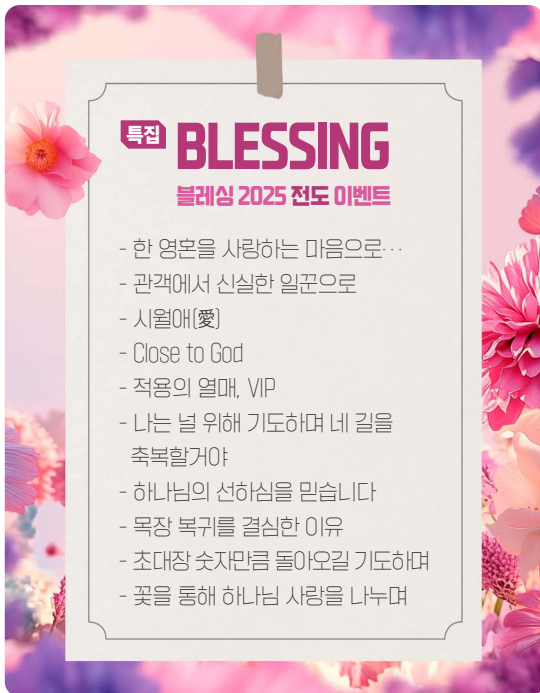
'오늘'이라는 선물, 감사로 물들이다

12 미취학지구

- 마더와이즈 회복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 마더와이즈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16 목장이야기

힐링과 회복의 은혜,
이웃사랑과 일상에서의 복음전도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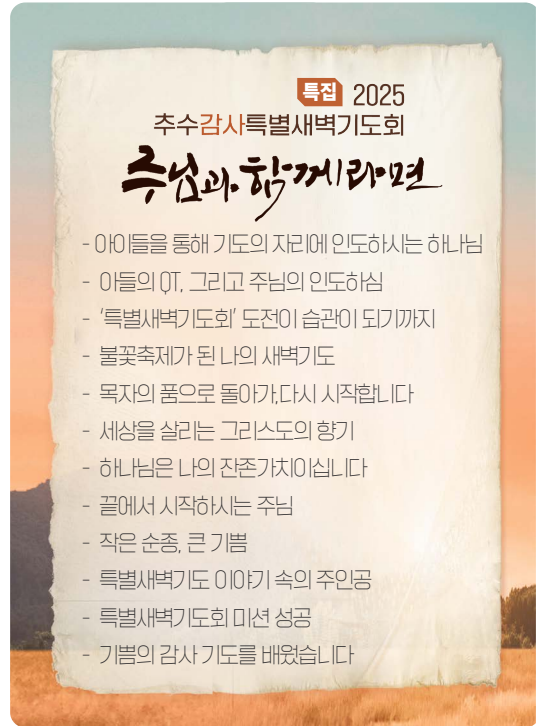


40 글로벌목장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43 마음 치유 클리닉

엄마와 아들 - 안정된 감정이 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애착에 대하여



68 동역 교회

함께 자라 가는 교회

70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섬김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

72 지구촌 갤러리

이경림 작가 개인전 - Relation

73 지구촌 토틱

인공지능 시대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 : AI의 이해와 활용 (4)
- AI,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76 식탁에 내리는 단비

하니 갈릭 오렌지 차킨
11월은 향긋하고 진한 맛의 따뜻한 차킨요리가 속을 든든히
채워 줘요

80 의학상식

면역항암요법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다



화목의 기술

로마서 12:14-18

김우준 담임목사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말을 어리석게 함으로써 건강하던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대화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1.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질책하기보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에게 다가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겸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고 수준 미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모두 기준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함께 힘냅시다.”

2.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면 꼭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본문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로 하기는 쉬운데, 직접 실천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본성을 거슬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자라 온 그 배경,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말합니다. 어느 날, 지하철 한 정거장에서 한 중년의 남자와 그의 자녀들이 탔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린 나이였는데 어찌나 개구쟁이인지 아이들이 타는 순간부터 열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참다 못해서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지금 저 아이들이 너무나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시켜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잘 몰라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몰상식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니,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니 이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

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볼 때,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을 넓게 열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크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병들어 갑니다.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시도 해 보고, 할 수 없거든 그냥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해 놓은 영어 성경(NIV)에는 ‘as far as it depends on you’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너에게 달려 있는 한, 또는 너에게 아직 결정권 또는 선택권이 있는 한 반드시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 됨을 지켜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한번 밥 먹듯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하셨던 안이숙 사모님의 수필집 『그럴 수도 있지』의 내용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는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으로 나 자신을 변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입장이 되어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자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뜻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만은, 너만은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됐어.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한두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과 정성을 쏟아부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그래서는 안 되었던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도 가서 너를 배신한 그 사람을, 너에게 침을 뱉고 너의 마음에 망치질한 그 사람을 품어 주고 용서해 주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설교 바로가기 →

추수감사 주일예배 이모저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득 담은 예배와 특별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쳤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모두에게 필요한 목장교회



임종득 목사

수지 7지구

달리기는 혼자 할 때와 함께 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함께 달리면 피곤해도 약속 때문에 나가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혼자서 달리면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방향이 틀렸을 때 자기 잡기가 어렵지만 함께하면 옆에서 조언해 주고 바로잡아 주기에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달리기와 같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방향을 잃거나 성장이 멈출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느린 것 같아도 어느새 건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서로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달리고,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지구촌교회는 두 날개인 대그룹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목장교회가 균형을 이루어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고, 목장교회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 낸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물론 주일 강단의 말씀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부르시며 서로를 통해 신앙이 더 깊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구촌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목장교회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교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왜 더 일찍 목장교회에 들어오지 않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어색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블레싱’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그들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목장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 곧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며, 실패와 승리를 반복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해 주는 곳. 목장교회에 소중한 VIP들을 초대해주세요.

아직 목장교회가 없으신 분들은 ‘목장교회 탐방’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목장을 찾아보세요. 모든 목장이 좋지만, 나에게 맞는 목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찾아보세요. 내 판단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인내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가 목장교회를 통해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오늘’이라는 선물, 감사로 물들이다



최진석 전도사

GMN(글로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길 위의 흔적들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함 없이 흘러가고, 감사의 이유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던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7).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상부터 간절한 기도까지 감사로 적어 내려가다 보니, 무심히 지나쳤던 은혜가 하나둘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기록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렇게 달라진 마음은 제 말과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은 제 언어와 태도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정직과 진실, 감사의 길로 이

끝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선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권위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시고,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앞에서 끌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걷는 동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도움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배워 가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한 구절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이끄는 나침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보내던 하루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진 하루는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만들어감을 느낍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어려움도, 마음의 메마름도 결국은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제 안에 잔잔한 평안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은 다시 숨을 쉬었고, 그 감사로 제 삶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 받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로 물들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제 삶을 통해 흘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옵소서.’ **지구촌**

마더와이즈

회복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김지혜AK

마더와이즈 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이 주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만져 주시는 회복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낮은 자존감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파고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심이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택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기에 내주었다.” 제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며,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나는 늘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스스로 세운 틀에 맞춰 살아가려 했던 저의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됨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 제가 만든 기준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던 저를 회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언약함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신부인 저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헵시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2025-2 마더와이즈 회복



마더와이즈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지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쁘게 쳇바퀴 돌리듯 말씀과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내 영과 육은 지치고 힘들어 어두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저 역시 직장맘으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살아 보려 했던 그 노력들로 인해 내 영혼은 메말랐고 눈물만 흐르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에 퇴사를 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을 듣고 있던 중 다른 학부모님의 권유로 직장 생활로 바빠 듣지 못했던 마더와이즈 <회복>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결혼식에 대한 비유는 웬지 모르게 불쑥불쑥 자주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감하기는 어려웠던 말씀이었습니다.

<회복> 강좌에서 신부를 찾고 맞이하고 준비과정, 혼인잔치까지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과 의미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매일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쳐 영광의 자리까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시는 주의 한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나의 본래 성격으로 하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의 방식으로, 주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나의 삶 역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현실에선 모든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제 주께서 마련하신 빛나는

처소에서 함께 할 소망 붙들고, 주의 사랑과 평강, 은혜 항상 나를 통하여 가족과 주변에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구촌**



힐링과 회복의 은혜, 이웃사랑과 일상에서의 복음전도 공동체



권순기 목자

분당3지구 서판교마을 J힐링자매목장

20여 년 전, 제가 미국 대학교의 초청으로 국제학술연구 수행을 위해 남편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인해 유언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신자였던 저는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한인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 나으며,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던 4년 후,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저는 중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건강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한 달간 암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전도의 사명으로 가득하여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주신 보너스 인생으로 여기며,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자도 거절되고 추방 위기에 놓였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b)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복음의 빛진 자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사도행전 20:35)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권유로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마치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 수십 년간의 교육자로서의 경험 및 사회활동과 사명을 따라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 구원과 치유의 통로로 성경적 진로코칭과 상담, 갈등 및 위기가정

회복 그리고 제자 양육의 섬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전도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회복된 동역자 가정과 함께 순회교 육선교와 탈북다음세대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진로를 찾아서 통일 이후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초 지구목사님께서 저의 사역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가도록 권면하셔서, 개척한 힐링자매목장은 한 영혼을 주목하며 ‘힐링과 회복의 은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복음전도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목

장원 구성은 제가 블레싱에 초대하였던 자매, 이사 등의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매, 타 교인이지만 목장교회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자매, 그리고 최근 복음전도를 사모하여 목장탐방을 왔다가 목장원이 된 자매 이렇게 6명의 목장원들이 사랑의 띠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 나눔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장모임은 매달 첫째 주는 남편이 불신자인 가정 또는 직장 관계로 인해 모임 참석이 어려운 목장원들의 참여를 위해 목장원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낮과 주일 저녁 이렇게 두 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주일 저녁에 줌으로 목장원들 모두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격주로 갖는 목장모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목장원들의 일터 심방, 전화 심방, 그리고 기도제목 업데이트 등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을 나누는 목장 나눔과 교제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 응답도 거절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것과 완벽한 때에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힐링과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일터와 가정과 일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 4:2a)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힐링과 회복의 은혜 중의 하나로 가족이 아직 불신자인 A자매님의 경우 그가 ‘가정에서 땅 끝까지’의 선교 사명으로 가족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기피해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으로 네 개의 맛집을 경영하는 B자매님은 힘든 상황에 처한 단골 청년들과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본인의 사업장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C자매님은 암 치료 중인 동생을 목장 나눔과 교제로 염려 대신 감사로, 지난 블레싱에 초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동생은 빠르게 회복되어 완치되었으며,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D자매님의 딸은 전도한 친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난 후 온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지난 5월 이동원 원로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E자매님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일터에서 직장동료들이 이직이나 퇴직할 때 식사 등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주변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목장의 이웃사랑 실천으로는 서판교 마을 공동체와 함께 그늘진 곳을 섬기거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일시적 보호하는 기관과 중증장애자공동체, 미자립 교회 등 소외된 곳에 책, 장난감, 의류, 전도 용품, 후원금 등을 수시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내선교에는 목장원 6명 중 5명이 복음전도에 동참하였으며, 블레싱 VIP초청에도 모든 목장원이 동참하여 기도로 잃어버린 40여 명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BLESSING

블레싱 2025 전도 이벤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만남,
그 사랑과 변화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모았습니다.

이 간증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이야기는,
언젠가 바로 당신의 간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진희D

분당11 S혜세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면 교회에서는 블레싱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휴~ 또 돌아왔네. 블레싱~~” 영혼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보다 이 행사를 어떻게 쉽게 끝낼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블레싱 이벤트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 목장에 데려올 만한 사람들도 없으니 특별한 이벤트 대신 전도지 나눠 주며 30-40분 정도 전도할까요?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속으로는 이렇게 시간 때우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십니다. 1명이라도 VIP를 적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고 하십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실천 하나씩 꼭 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자꾸 부담이 느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장의 VIP들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VIP들은 남편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때때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하고 손 내밀어도 돌아서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사람. 사랑의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의 가정들에게 개입하고 싶으시구나, 마음은 힘들지만 다시 손 내밀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목장에 초대하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감사 편지도 쓰고, 축복 찬양도 불러 주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가정별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좋을거 같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목장원들은 마음에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감사 편지는 무리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손 내밀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의 말이 나올거 같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원하시면 데려와는 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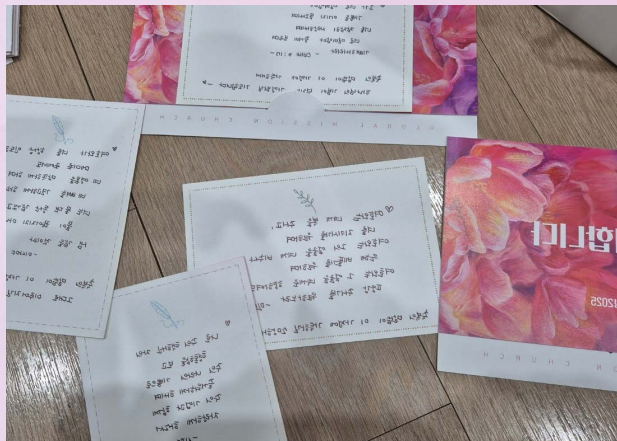
이런 고백으로 저의 목장 블레싱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알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대신 너무 부담스럽게 준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기도도 준비했습니다. 특새 기간이어서 더 특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 주셔서 거리낌 없이 모임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자매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들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아닌 평안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도이벤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며 회사 가서 못 온다는 남편, 감기 몸살로 못 온다는 남편, 기도로 준비했는데 잠시 낙담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인사 나누며, 즐겁게 교제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남편팀 아내팀 나누어서 몸으로 말해요(속담 맞추기, 성경구절 맞추기)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짧게나마 말씀을 듣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이라 다들 신나게 웃으며 참여하였습니다.

블레싱 초청장과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을 적어 선물을 드리며 교회에도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초대의 말도 전했습니다. 부인들이 매주 모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더니, 오~ 하고 놀라십니다. (진짜??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요.)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벤트 다음날인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며 그 아쉬운 부분 때문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 목장의 가정들을 천국가정 만드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 빨간옷, 초록옷 드레스 코드 맞춰 입고 또 한번 모이자고 했는데, 다들 시간이 되어서 그때도 다시 모여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구촌**



관객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오세홍A 목사

분당11_C동천D3

50여 년을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의 관객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던 제가 지난 연말 목자님 이신 이 장로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목자를 그만둠에 따라 목장 내 몇몇 집사님들과 제비뽑기 끝에 얼떨결에 맡게 된 목자 자리는 진정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니 목장에서 제일 날라리 신앙인인 내가 이 거룩하고 신실하신 믿음의 신앙인들로 가득한 이 목장에 내가 목자가 된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목장 예배를 주관하던 9월의 넷째 주 목장 예배 때 2025 블레싱 축제에 대한 설명과 VIP 명단 제출 건을 논의하던 중 저희 목장 초대 목자였던 김 집사님께서 뜬금없이 목장원 전원이 노방전도를 나가 보자는 제안을 하셨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려는 찰나 맞은편의 박 권사님께서 찬양 버스킹도 하면서 하자면서 일을 점점 키우시고, 명색이 목자로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떨떠름하지만 진행 절차를 협의하기로 하자, 기다렸다는 듯 모두가 하나같이 솔선수범 각자의 달란트대로 척척 알아서 역할을 나누시고 일정을 정하고, 컴퓨터에 능하신 원 집사님은 챗 지피티를 활용하시어 계획서를 깔끔하게 만들어 보내 주시는 등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버스킹 찬양곡을 정하고, 두 차례의 연습 모임을 갖고 목이 쉬도록 찬양을 연습하고 초청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장 가족들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디어 D-Day 수지구청역 사거리! 기타 연주 지원을 나오신 지인 목장의 김 집사님 부부, 노령의 연세에도 따님과 함께 합류해 주신 권사님 모녀 등 네 분의 지원 아래 9명의 찬양팀, 5명의 전도팀으로 나누어 시작된 노방전도는 주변 상인과 다른 노방 사역팀들의 호응과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깔 맞춤한 복장 덕인지 상당한 나이의 목장원들임에도 기운찬 활력과 씩 없는 열정에 아름다운 버스킹 합창단의 모습을 연출하였고, 지나는 행인들은 관심과 호응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에게 말씀 전함과 지구촌교회 블레싱 축제에 초청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200개의 초청 선물과 초청장은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소진되었고, 여분으로 준비한 블레싱 초청장도 300여 장이 넘게 전달되는 놀랍고 가슴 뿌듯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시간이 끝나고 뒤풀이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목장원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세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목장 가족분들과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구촌**



시월애(愛)



전옥순 권사

분당시니어 7마을 열매 1목장

다가오는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시월애(愛) - VIP와 함께하는 목장별 야외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목장은 VIP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VIP에 대해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현주 권사님께서 지인을 VIP로 정하시고 함께 시월애 야외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현주 권사님은 VIP가 혹시 거절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시고 오셨고, 우리는 미리 옆 테이블에 VIP 자리를 마련해 두고 기도부장의 인도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 조용히 중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월애 전날, 오현주 권사님의 남편님께서 갑작스럽게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 오현주 권사님이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VIP를 직접 모시고 약속된 장소로 오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인 11시 30분이 지나도록 두 분이 도착하지 않아 목장원 모두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손에 땀이 날 만큼 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다시 중보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12시가 훌쩍 넘어 마침내 VIP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자리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긴장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분간 복음을 나눈 뒤, VIP분은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고 결신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 중 눈시울을 붉히며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VIP분은 집 근처 교회를 다녀 보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목장의 목장원 김 권사님이 준비하신 머플러와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VIP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장 식구들과 기도 후원자, 그리고 오현주 권사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VIP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월애 행사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우리 목장은 그 사랑을 품고 더 많은 영혼을 품는 공동체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Close to God



엄정용B

수지1 S슬숲4

교회를 가는 길은 유난히 벚나무로 가득합니다. 올 해의 봄은 벚꽃이 터져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듯,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드리는 목장 예배는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찬양으로 와 닿아 단순히 2D 찬양곡 가사들이 3D가 되어 마음에 콕콕 박히는 듯한 감동이 있었고, 서로를 위한 뜨거운 중보 기도와 매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저희는 함께 주님을 닮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것 같은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월 마지막 주, <하나님을 안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복음 전파 사역의 결단을 오늘 당장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 우리 목장의 적용은 VIP 명단 중에서 전도 이벤트 초청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으로, 기도하던 VIP 중 세 분이 전도 이벤트에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쁘게 주님께선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디어 전도 이벤트 당일, VIP분들이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모든 VIP분들이 참석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참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 이벤트는 스톤 디퓨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디퓨저를 만들기 전, 감사 트리에 감사하고 싶은 대상을 한 명 정해서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에 여행가자해서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반찬 투정 안해서 고마워” “내 감정 잘 받아줘서 고마워” 등등… 짧은 나눔의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감사함에 눈시울을 붉힐 만큼 공감했습니다.

이후 스톤 디퓨저를 만들며 각자 좋아하는 향기를 찾고, 집중이 잘 되는, 잠이 잘 오는, 혹은 공기 정화가 잘 되는 등 목적에 맞는 디퓨저를 만들었습니다. VIP분들은 완성품이 너무 훌륭하다며 좋아하셨고, 오늘 나눔 시간이 참 좋았다며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 동안 편안한 나눔을 했고 저희는 부담스럽지 않게 “목장 예배에 놀러 오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며 이벤트를 마쳤지만, 그 따뜻한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이 가을을 걷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올 한 해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까지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Close to God. 주님과 더욱 가까이하는 삶을 기대하는 저의 가을은 주님을 향합니다. **지구촌**



적용의 열매, VIP



오은영C

수지2_S우리2

올해 수지2지구 신정 7마을 우리2목장 목자가 되어 네 명의 목장원들과 함께 매주 열심히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적용해 보자는 목표로 한 학기를 보냈고 아름다운 가을, 블레싱 이웃사랑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VIP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땅히 교회로 초청할 만한 분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저는 목자로서 첫해이니 VIP 초청 목장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님은 매주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한 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며 전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고 주위 목사님들도 목장 이벤트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만나게 된 서운 학생 어머니가 평소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이셔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운이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여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VIP 선물을 구입해 세운이 어머니께 드린 후 초청장의 여러 예매 중 한 번은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후 세운이 어머니가 11월 향수 예매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10월에 목장 이벤트도 가능하신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세운이 어머니는 그날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식사와 환영 꽃다발과 게임과 찬양을 나누어 말아 기도로 준비하는 1주일 마침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더욱 설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가며 나누고 목장교회와 지구촌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증언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 끝에 VIP는 우리에게 기억나는 성경말씀이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고 싶어하는

준비된 VIP와 함께여서 더욱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목하셔서 사랑으로 구원하기 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기 알맞은 깨끗한 그릇으로, 늘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목장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거야



박지희G

수지6_5가디너스3

저는 지구촌교회를 출석 한 지 15년 정도가 된 성도입니다. 자매 목장에 계속 참석하고 있어서 블레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날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매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블레싱 축제를 보내며, 형식적으로 VIP를 작성하 기도하고, 어떤 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블레싱 선물을 전달하며 슬쩍 얘기해 보기도 하고, 아이가 친구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때 아이 친구 엄마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라고 안내해 주듯이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꼭 VIP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어찌면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블레싱 축제에는 담임목사님의 강력한 권면도 있었고, 목장모임에서 VIP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늘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선물도 준비 못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장모임에서 VIP인도자 지침서를 받게 되었고 그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션 하듯이 VIP 대상을 적고 선물을 준비해서 용기 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지에 처음 이사를 와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이 친구 엄마로 처음 알게 된 두 명의 친구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두 첫째 아이 친구이면서 엄마가 동갑인 친구가 두 명 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가끔씩 소식도 전하고 얼굴도 보는 사이라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었고 한 친구는 믿음생활을 하다가 잠시 떠나 있지만 제가 지구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서 선물 전달과 초대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목장에서 열리는 블레싱 목장 모임 날이 밝아오 고 그동안 추수감사특별 새벽예배를 통해 열심히 기도하고, 목장에서 계속해서 의논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장은 인원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또 다른 VIP 두 분도 오시는 상황이라 사람도 많고 뭔가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에 목장이 처음인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작정하고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도 우왕좌왕 긴장이 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각자 맡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기에 믿고 담대하게 시작했습니다. 다행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풀어지고 조금씩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고 웃기도,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 하기도 하며 준비한 행사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목장모임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조금 부담스럽다는 피드백과 아직 자신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친구들에게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기대하고 믿고,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목장 블레싱에서 함께 찬양한 야곱의 축복의 가사처럼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 할거야'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나이이지만 이 나이에도 아직 처음인 것과 초보인 것이 많아 서로 의지하는 친구로서 또 사춘기 자녀를 둔 육아 동지로 믿음 안에서 더욱 협력하여 기도하며 함께하고 싶은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게 이런 마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상황에도 모르지만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구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전병선B

수지6_S가디너스3

‘지상명령을 다하기 위하여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았느냐?’ 주일 설교 중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제자 삼으라는 복음전파의 지상명령을 나는 얼마나 이행하며 살았을까? 마음에 찢림과 울림이 전해지는 설교였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리라 결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웃사랑의 열매인 복음전파 앞에 두려워 머뭇거리는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예레미야 20:9).

주일설교를 들은 후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죽어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제 마음에 공유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해 주세요.” 예배 후 찬양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중).

제가 속해 있는 자매목장에서 목장 블레싱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위와 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저는 초대할 VIP가 없었기에 마음의 짐과 찢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마지막 강의날, 같은 조였던 자매가 자매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할렐루야!’ 바로 목장 블레싱에 초대했습니다. 비록 새신자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자매이기에 자매목장 참여를 꼭 권유하고 싶었습니다. 선뜻 응해 주었고, 생각보다 쉽게 진행됨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그래, 올해는 한 건 했네. 충분하다’라는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목장블레싱 전날 VIP자매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했고, 목장 블레싱에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장 블레싱 당일 새벽 저의 둘째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했는데 좌절스러웠고, 우리 목장엔 이미 다른 목장원들이 초대한 VIP 3명이 더 있으니 올해는 그냥 내려놓자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 저와 VIP는 못간다고 연락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주님의 뜻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내 VIP도 안 오고, 목장모임 가있는 동안 아픈 둘째를 맡길 곳도 없는데 기도보다는 빨리 맡길 곳을 찾는게 우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VIP에게 자매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톡~ 카톡~ VIP자매의 연락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아져서 목장 블레싱에 참석할 수 있고, 15분 정도만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둘째 아이 맡길 곳을 찾아 잠시 맡기고 목장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목장원들과 기도로 준비한 목장 블레싱 모임은 역시나 은혜가 가득했고, VIP자매는 그날 바로 자매목장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끄심, 일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더 극한 상황이었더라도 길을 열어 주셨을거라 확신합니다. 목장 블레싱을 하기 몇 주 전부터 말씀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깨닫게 하였고, 전날 그리고 당일날의 상황을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 삶을 통해 이뤄 가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한 1서 2:6).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어떠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구촌 자매님들, 아직 자매목장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자매목장에 등록하세요. 자매공동체 안에서의 또 다른 은혜가 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상을 아시나요? 정말 체험해 보셨나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매목장 또한 그렇습니다. 지구촌 자매목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구촌**

목장 복귀를 결심한 이유



이선희B

수지9_5하사랑

추수감사특새의 은혜 가운데 목장에서 전도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1-2주 전에 전도이벤트를 하려다 보니 추석명절 바로 다음 주로 일정이 잡혀서 준비시간이 촉박했지만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목장원 한 분이 2학기부터 VIP를 목장으로 인도하여 2번 참석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을 위한 전도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첫 순서엔 가벼운 질문으로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엔 찬양부장이 준비한 쉽고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VIP는 찬양을 잘 모르는 상태라 들리는 멜로디와 가사를 음미하며 악보를 따라 갔습니다. 찬양을 다 부른 후엔 “얼마 만에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불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경험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 목장원의 신앙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미리 적어 온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는데 과거에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표현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매의 인생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였습니다. 참석한 VIP도 촉촉해진 눈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운이 남아 잠깐 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글썽거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중보기도부장의 하나님 향한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 퀴즈게임도 진행했는데 많이 웃으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식사교제까지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VIP에게 지속적인 목장 참석과 블레싱 축제 참석을 권면하면서 전도이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전도이벤트는 특별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배가로 인해 올해 처음 출발한 하사랑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목장 참석이 어려워진 목자님이 목자를 내려놓은 이후 제가 임시로 목자를 맡고 있는데, 해외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5년 만에 목장에 복귀한 한 자매로 인해 목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혼자만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VIP와 함께 목장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이벤트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라 느껴졌습니다.



목장 복귀를 결심한 이유가 'VIP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고 싶어서'라는 자매의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언니! 아직은 기독교가 많이 낯설어 교회로의 발걸음이 주저되는 이웃 언니를 위해 목장으로 인도한 자매에게서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전도이벤트에 참석한 VIP가 예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구촌**



초대장 숫자만큼 돌아오길 기도하며



김현정Y 목사

분당3지구 동판교A마을 아들람2목장

저희 목장은 목장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면으로 블레싱2025 초청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추석연휴 내내 비가 와서 목장원들 모두 날씨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비만 안 오게 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수요 예배 후 목장원들이 함께 모여 블레싱 초대장과 함께 커피스틱과 쿠키 그리고 전도 팔찌를 포장해 50개 정도 준비하고 금요일 오전 판교 화랑공원에 10시쯤 서둘러 자리를 잡고 주보와 지구촌비전도 함께 정성껏 테이블에 진열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준비한 초대장 숫자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과 함께 블레싱초대장은 채 한시간이 안되어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산책하는 직장인들과 수업하러 나온 중학생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블래싱 초대장을 받고 기뻐하시는 분, 교회 안 나간 지 한참이 되었다는 분. 지구촌 교회를 알고 계시다는 분. 친구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분.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를 설득해 달라는 분. 그리고 초대장이 예쁘다는 분. 다른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한번 방문하겠다는 학생,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초대장을 하나 더 달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초대장이 적어서. 너무 아쉽기만 했구요.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청명한 날씨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함께한 목장원 김진숙 자매와 진윤미 권사님의 놀라운 친화력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구촌



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김재영Y 집사

분당 6지구 5만나2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VIP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싱 VIP 전도 이벤트를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셨고, 목장 식구들과 두 분의 VIP와 함께 꽃꽂이 클래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일일 강사로 세워 주신 저는, 오래 전 심한 우울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겪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꽃꽂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문 강사도 아니고 꽃꽂이를 배워 본 적이 없어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받은 사랑을 VIP에게 전하라 하시라는 기대를 품고, 간증과 꽃꽂이 강사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VIP와 만나는 새벽, 꽃시장에서 아름다운 꽃을 가득 싣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오픈해 주신 집사님 덕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꽃꽂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챙겨 주시며 바쁜 저희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 주신 집사님, 더러워진 바닥을 무릎 꿇고 깨끗이 닦아 주신 자매님, 또 지루할 틈 없이 기쁨 주신 집사님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꽃꽂이 클래스를 준비하며 우리 목장은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VIP 두 분과의 수업에 앞서 함께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한 VIP께서는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흐르는 눈물을 꼭 참으셨다고 하시며 나중에 조심스레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간증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꽂는 모습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송과 여러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자매님은 오랜만에 모든 걸 잊고 하나님의 사랑



을 누리셨다고 하였고, 또 어떤 분은 꽃꽂이를 하면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함을 깨닫게 되었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꽃꽂이를 포기하려던 분은 끝까지 성실히 참여하시며 다시 재능을 발견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뻐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VIP는 어느덧 목장 식구가 되어 있는 듯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VIP 한 분에게 요즘 일상 전도 훈련 중이신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집이 지방이라 당장 지구촌 블레싱에 오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꼭 교회에 가겠다고 기쁜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눈물 흘리시던 VIP는 직장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레싱 초청에 꼭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장에서는 두 분의 VIP가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준비한 VIP 전도 꽃꽂이 이벤트는 우리 목장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저를 통해, 목장을 통해, 또 지구촌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Tameka Viola Cozier

타메카 코지어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 Isaiah 43:18-19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 이사야 43:18-19

Moving from Canada to South Korea was not an easy choice. However, in my case; it was the only choice. In December 2022, I experienced severe chest pains and visited the hospital. After some routine tests, a cardiologist found a small hole in my heart. Unfortunately, that was only the beginning of heartache I would later undergo in 2023. On June 1st 2023: I quit my job, left my toxic local church, said goodbye to my loved ones as I moved to South Korea in hopes to start a new life as an English teacher. Nevertheless, I was not prepared for the Lord to do a “new thing” in my life.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저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심장 전문의는 제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23년에 겪게 될 더 큰 마음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하지 않았던 지역 교회를 떠났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영어 교사로 시작하기 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In January 2025, I visited GEM for the first time. At first, I was hesitant to return to a church, or any place of worship because I was severely scarred from my previous church in Canada. Yet, I built up the courage to attend. Once I arrived at the 2pm service, I was astonished at how welcoming and passionate everyone was. Since arriving to GEM, I met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Having grown up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in Canada, it was wholesome to experience the same warmth in South Korea.

2025년 1월, 저는 처음으로 지구촌 영어예배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의 이전 교회에서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다시 교회나 예배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영어예배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얼마나 따뜻하고 열정적인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촌 영어예배부에 온 이후로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문화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저에게, 한국에서 그와 같은 따뜻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었습니다.

For the last ten months, GEM helped me to change my perception of the church community and rekindle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From attending weekly cell church meetings, wellness check-ins from leadership, and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outside of the 2pm service,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orgetting the former things". I embraced what the Lord was trying to reveal to me – Korea was my new home and a new opportunity to evangelize and witness to others in a foreign land, while still obeying our sovereign God.

지난 10개월 동안 지구촌 영어예배부는 저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었고, 주님과 개인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리더들의 섬세한 관심을 받고, 예배 외의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전 일을 잇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려는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 한국은 제게 새로운 집이자,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All gratitude and honour is reserved to Jesus. He brought me through the wilderness of my past and ventured into a land of miracles. Although I am still a foreigner in Korea, with minimal communication skills in Korean or complete knowledge on the cultural nuisances; God has kept me surrounded by blessings, a safe work environment, a pleasant living accommodation, and a blessed local church. With my upcoming heart surgery in 2026, I know that the Lord will continue “spring up streams in the wilderness”.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분은 저를 과거의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적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고 문화적 세세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으로 둘러싸 주셨습니다 — 안전한 직장, 쾌적한 거주지, 그리고 복된 지역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가올 2026년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광야에 강을 내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구촌**

엄마와 아들 - 안정된 감정이 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애착에 대하여



이혜진

분당6지구 탄천 은혜6목장

몇 년 전부터 딸과 엄마와의 관계에 관한 책에서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에 관한 책, 이슈, 주제가 종종 등장한다. 오랫동안 엄마와 딸과의 애증 관계를 다루었던 책들과 강연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엄마와 아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 유튜브 강연 등이 나오고 있다.

아들을 낳고 싶었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전에 내가 엄마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 서인지—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미세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딸보다는 아들의 쿨하고 단순한 성격이 나와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렇지만 나 또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다소곳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아닌 하루에 몇십 번씩 큰소리쳐야 겨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한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지 않아 ‘재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속이 부글부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친구와 놀 때도 아들은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만을 내세워 친구에게 자기를 배려 안 한다고 뭐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소 예민한 편인 아들은 나한테 그렇게 혼나는 일이 있다가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듯이 —기분이 빨리 풀리는 건지 단순한 건지— 혼난 기분이 오래 가는 일은 많지 않았다. 빠져 있는 시간이 꽤 길 수도 있고, 말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엄마, 엄마~” 하며 내가 잠시 밤에 마트에 다녀오려고 하면 귀찮을 법도 한데 “나도 같이 가” 라고 하며 갑자기 외출복을 갈아입는다. 잘 때도 “엄마랑 같이 자~” 하며 내 옆에 몸 어디 하나라도 닿은 상태로 자고, 내 머리며 얼굴을 만지고 장난치다가 잔다.

그러니 아들이 잘 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더 쩡해지고 미안하고, 뭔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들의 뇌』 <곽윤정 저>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흔히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

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도 두뇌의 신경세포(뉴런)를 통한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신경세포 접합부)를 만들어내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때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전달물질—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신경세포 간의 접합부인 시냅스 형성을 촉진해 주고 아기가 안정적인 기분이 되도록 도와주며,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인지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도파민은 두뇌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p.25~26인용>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선 아이들을 학원숙제 하라고 다투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에게 주는 따뜻한 말, 애정, 경청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안정되면 즉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되면 아이의 다양한 인지능력도 향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아 더 속이 터지는 경우도 분명 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 하고 있고, 사랑을 주는 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의 언어일 것이다.

내 아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소 예민한 아이다.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나와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상태에서 “네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놀아야지!”라고 반복된 말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면 아이는 “하기 싫은데, 아, 귀찮아”라는 말을 가끔 하거나 입이 나온 상태로 되곤 했었다. 그런 이후에, 어느 날 나와 관계가 좋아질 때 아들은 내가 하는 말에 말대꾸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면서 해야 할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때로는 아들이 나와 재미있게 숙제를 하고, 웃긴다고 하면서 킬킬대며 웃을 때, 나도 배꼽 빠지게 웃는다. 아이의 숙제를 지도하고 봐 줄 때, ‘이런 유머 섞인 학습지도도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아들이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나면 나는 아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은총아, 성취감이 드니?”라고…….

아들은 그렇다고 한다.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마친 아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하니, 아이는 할 것들을 열심히 해서 힘들어하며 갑자기 엎어달라고 한다.

갑자기 아들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지만, 아이는 엄마 등에 업히고 나니 좋은가 보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놀거나, TV나 만화를 보거나 심지어 집 안에서 갑자기 야구공으로 축구를 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알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는 “엄마, 배고파” 하면서 먹을 것이 있나 냉장고 문을 여닫는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거나 밥을 해서 주면 잘 먹는다. 그래서, 나 또한 요리에 관심이 생기고, 취미가 생겼다. 음식을 하는 내가 서툴러도 아들이 맛있다고 밥 한 공기 푹딱 할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하느라고 직접 음식을 해서 자주 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요즘은 직접 음식을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보다 적게 나가는 아들이 내가 한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맛있다고 하니, 밥상머리에서도 갈등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요즘이다. 이것은 엄마와의 관계 애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 자신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아이를 볼 때 예민해지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

애착, 특정한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은 아이의 뇌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공부와 성적에 있어서도 안정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다 해 놓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되면 짜증이나 불안, 우울함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자기조절능력 또한 생기게 되어 자신의 우선순위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나님,

제 아들의 학교에서의 상황,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힘듦과 아픔, 무기력,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풀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들에만 더 집중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도 하기 싫을 때는 미루고 막판에 가서 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자 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린 아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그 속에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구촌**

(다감심리상담센터, / 상담심리 전문가&임상심리사)



특집 2025
추수감사특별새벽기도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5 추수 감사 특별새벽기도회.

미취학 지구에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올려 드린 특별새벽기도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이 주시는 회복, 함께하시는 동행의 은혜, 어떤 환난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역전의 은혜와 그로 인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을 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도 일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를 나누어 보자. **지구촌**





아이들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다은A 서리집사

분당3지구 이매8목장

연년생 남매인 자녀와 특별새벽예배에 참석한 지 어느덧 3-4년이 흘렀습니다. 초반에는 자모실에서 자거나 뛰어놀기 바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본당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새삼 실감합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특세의 가장 큰 동기가 맛있는 간식과 출석 스티커를 모으는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새벽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특세는 언제 시작하냐”라며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과는 달리, 제 마음에는 특세 참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복잡한 고민거리와 장기간 복용 중인 약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데 엄마가 빠지자고 할 수는 없어, 참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세 시작 전날 밤에도 잠에 들지 못해,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면서 다시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저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새벽예배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해하던 남편이기에, 당연히 특세 참여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세 첫날 새벽, 남편이 먼저 일어나 “같이 가겠다”라고 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일 내내 같이 참여하리라고는 더욱더 생각지 않았는데, 비가 내려 운전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마지막 날까지, ‘베스트 드라이버’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아 주어 온 가족이 안전하게 특세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향해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건네주실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어깨가 으쓱하며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자에서 들썩이던 엉덩이가 점점 가라앉고, 뻘뻘한 글씨로 설교 내용을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김우준 목사님 설교가 제일 재미있어요. 예배시간에 안 졸린 건 처음이에요!”라며 해맑게 말해 저희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평소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졌던 시편 23편 말씀이 이번 특새를 통해 정말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자리한 죄의 습성을 직면하게 하였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한 결과가 제 삶 속에 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쓰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저보다 더 심한 불면증과 불안, 우울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특새에 오고 싶어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춘기가 오거나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특새를 통해 부모와 함께 기도해 주신 기억이 아이들 마음속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 잘 뿌리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언젠가 아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가 오더라도,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넉넉히 통과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새에 참여한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특새에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 가족이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에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천국의 소망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

아들의 QT,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문성훈 집사

분당6지구 양지탄천 A마을 B양지4목장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는 저에게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 병을 앓은 뒤,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회 공지가 나오기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네 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그리고 지방의 기숙형 국제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식구가 함께 모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전 휴식기에 있었고, 딸도 방학 동안 집에 머물게 되어, 짧지만 소중한 2-3개월을 온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싱가포르로, 딸은 다시 기숙 학교로 돌아가자 제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참여하며, 일본어 예배부 섬김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이 가족 특방에 매일 QT 나눔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들은 꾸준히 QT를 올렸지만,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계속 QT를 나누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아들의 QT로 시작되었고, 점점 저도 제 QT를 가족 특방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주님과 대화하는 듯했고, 제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그 무렵, 새벽기도회 공지를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가 먼저 “같이 새벽기도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약한 제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첫째 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문득 예전에 비가 온다는 핑계로 중단했던 두 번째 새벽기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피곤하지도 않았고, 다시 눕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느끼는 설렘처럼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내를 깨워 함께 준비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고,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봉독될 때, 몇 달 전 목장 형제들과 함께 암송했던 구절임을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매일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피곤함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바로 출근해 QT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루틴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데, 감사 없이 부족한 것만 채워 달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6).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저 또한 확신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의 기도는 단 하나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평생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한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구촌**

‘특별새벽기도회’ 도전이 습관이 되기까지



윤경순 C 목사

분당3지구 과천판교마을 예수뒤편목장

불신자였던 제가 믿음의 남편을 만나 2007년 결혼예비학교로 지구촌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선데이크리스천으로 생활하다가 2015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에 ‘천국시민권자’라는 말씀을 통해 그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주님의 수많은 콜링을 모른 척 듣지 않았던 모습이 떠오르며 회개의 눈물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과 자녀양육의 핑계로 특세의 자리를 거룩한 부담으로만 앓고 있다가 둘째 성준이의 영아촌 목사님의 권면과 함께함을 통해 아이들과 특세 완주에 도전할 수 있었고, 첫 완주를 시작했던 주에 완주 선물과 주일예배에서 칭찬이 너무 좋았던 첫째 라희는 그 후로 무조건 특세 완주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에의 열심보다 인간적인 칭찬과 선물에 방점이 찍힌 도전이었지만 어느덧 6년의 시간이 흐르자 특세가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잡고 올해에는 더 서둘러 앞자리를 사수하고, 예배시간에 설교노트를 부모보다 더 잘 작성하며 말씀을 받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매일의 여정을 달려오며 목장 카톡방을 통해 전한 내용을 공유하며 특세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1일차

긴 연휴 후 일상 복귀로 몸도 맘도 분주한 날이지만~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에 의지하여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이길요~

날씨는 곳지만~ 마음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2일차

추수감사특새 2일차 ‘신뢰’의 주제로 시편 23:2편 말씀으로 주셨네요.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겁 많은 양들이 누울 수 있을 때는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맡길 때임을 보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오늘을 또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안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평강가운데 사는 우리이길 기도합니다. 라희 7 살되는 신년특세의 완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이들과 고열 등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특새 완주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며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성준이가 본당 맨 앞자리에 앉자고 해서 담임목사님 코 앞에서 은혜 듬뿍 누리고,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서 감사로 드렸네요. (지난번 특새까지만 해도 날개쪽에 앉고 아이들이 말씀시간에 즐거나 보채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앞자리 사수할 정도로 자랐네요.^^) 모든 스케줄을 특새모드로 변환하여 일과를 축약하고 8시에 잠들며 특새를 준비하고 예배드리 는 한주간이 은혜입니다. 이번 특새기간 온라인으로 또는 단 하루라도 현장의 특새예배를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3일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어제는 7시 반에 기절하듯 잠이 들고 새벽 3시 50분에 개운하게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로 깨우지 않아도 엄마의 부스럭 소리에 일어나 스스로 옷 갈아입고 새벽예배 준비하는 아이들에 감사합니다.

특새모드로 며칠을 지내보니 일상이 참 단순해짐을 경험합니다. 일찍 자야 하니 깨어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일처리와 집안일 저녁식사, 샤워 등을 빨리 하고, 유튜브나 TV를 볼 시간이 없어지며 새벽 말씀의 은혜로 자꾸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짐이 감사입니다. 오늘 양들의 습성에서 죽음의 위협이 되는 넘어짐을 부르는 나태함, 더러움, 똥똥함에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부지런히, 정결하게, 말씀에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나날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되어요~

4일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꽃길만 있으면 좋을텐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과 평강, 승리의 나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새 4일차 오늘은 유난히 육체적 피로로 일어나기 힘들고 눈 뜨자 코피를 쏟는 성준이를 보며 특새를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을 통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고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 붙잡고 평생 동행하는 힘이 생김을 봅니다. 차 타고 교회갈 때는 오늘은 졸려서 예배 시간에 잘 것 같다는 라희였는데, 다시 차 타고 집으로 올 때는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 하나도 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준이 라희 모두 기운찬 모습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입니다. 아쉬운 특새의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생각하며~ 목장 식구들도 남은 이틀 그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날 되세요~ *^^*

5일차

연휴 후 출근이 힘들다 했는데 벌써 한 주가 흘러가네요. 열심히 달려온 목장식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나의 열심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네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

확신, 신뢰, 회복, 동행에 이어 오늘은 ‘역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평탄한 대로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임을 이것은 삶의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며 산 너머 산의 삶 가운데 원수를 물리쳐서 기쁜 것이 아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매일 잔치와도 같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특새의 은혜에 빠질 기회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그간 혹시 온라인으로만 드리셨다면 현장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강추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완주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네요. 목장식구들 중 내일 특새 후 맥도널드(용인수지DT점)에 오시면 맥모닝을 씹니다. (마을장님카드로 ㅋㅋ) 반가운 얼굴들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의 날 되어요!

6일차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6), 귀한 특새의 마무리는 ‘축제’의 주제였네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축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 내는 소망,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사랑이 비결임을 배웁니다. 특새 6일차를 달려오며 육체적 피로가 없을 순 없지만 저번까지만 해도 날개 자리에서 집중 못하던 라희, 성준이가 앞자리를 사수하고 특히 라희는 엄마아빠보다도 설교노트를 잘 작성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도전이 습관이 되고 기대가 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오는 2026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는 또 어떤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지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지구촌**

불꽃축제가 된 나의 새벽기도



정혜숙B

수지7지구 그루터기1목장

나만의 축제였을까? 여기저기서 펄펄 터지는 불꽃을, 기쁨의 환호를 보여 주신 추수감사새벽기도축제를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나는 새벽기도에 동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패턴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자는 날이 늘어나면서 잠을 안 자고 새벽기도를 갈까도 하다가 자신이 없어 목장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수면패턴으로 고민하던 고교동창 친구가 안스러웠던 나는 이번 새벽기도로 패턴을 바꿔보자는 제안하였고, 그 친구가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이번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대학동창도 함께하여, 서로 다른 곳에서 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난 남편이 나를 깨우고, 나는 고교동기를 깨우고 나서 목장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추수감사새벽예배의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편23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담임목사님 단독 새벽예배! 짧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일주일간 말씀 주제인 것이 몹시 기대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성공, 화요일 성공... 수요일은 알람보다 20분이나 일찍 일어나게 되고, '3일째가 되

니 이런 일도 일어나네' 하며 적응해 가는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빠른 걸음으로 목사님과 만나는 버스정류장을 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텝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나는 짜당하며 땅으로 박히는 듯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조절하려는데 내 몸이 아니었고, 심한 통증이 밀려왔으며, 상처보다도 머리가 울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외투의 팔꿈치 부분은 두 군데 구멍이 났고, 팔과 무릎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마침 단지로 들어오신 목사님 덕에 차를 탔으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상처의 통증이 밀려와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양쪽 무릎과 팔꿈치에 난 상처를 남편이 처리해 주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 가지 못한 속상함이 물밀 듯 밀려왔습니다.

수요일의 동영상 예배 포함하여 매일매일의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팀 리더인 대학동기는 말씀을 듣고 난 느낌을 찬양으로 찾아 올렸고, 나는 그 노래를 고교동기에게 보내며 새벽예배를 격려했고, 고교동기는 밤을 새고 새벽예배에 동참하는 소식과 매일의 동영상을 세 번씩 반복해서 들었으며, 그 소식을 대학동기에게 전하면서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정도라는 의견을 줄 정도로 마음이 일치하였습니다. 각자 서로의 은혜받은 모습들을 들으며 도전받고,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요일이 특별히 은혜로왔다며 문자로 의견을 보내고, 반복재생으로 내 것을 만들거야 하며 기쁨을 전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새기며 감동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평평 불꽃을 터트리며... 어느 요일 VIP가 블레싱 초청에 확답을 안 주어 초조하다는 말에 고교동기가 자기가 가나 안교인였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새벽기도 초대가 자신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으니 초조해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돈독해지는 우정만으로도 감사가 넘쳤는데, 또 불꽃이 터졌습니다. 평하고... 누군가는 무거운 기도제목을 들고, 누군가는 간절한 제목을 들고, 사느냐 죽느냐일 정도의 제목들을 들고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제목들은 달랐지만, 동일 항목인 마음의 평강이 크게 찾아왔으며, 평강을 넘어 축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쁨으로, 가벼움으로 바뀔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도 축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특별새벽기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과 긍휼한 마음을 가진 김우준 담임목사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지구촌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지구촌**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합니다



김영일D
분당 10지구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제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어느새 제 신앙은 습관이 되어 버린 의무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보다 세상의 일과 근심이 제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가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함께 가보자”고 권유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을 깨고 주님과 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의 발걸음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제 영혼의 회복 여정이 되었습니다.

1) 확신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첫날 말씀을 통해 저는 ‘부족함이 없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이란 늘 물질이나 건강, 사람과의 관계 같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예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는 언제나 ‘충분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2) 신뢰 -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시편 23:2)

둘째 날 목사님께서 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Fear(두려움), Fight(다툼), Flies(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중 ‘Flies’, 즉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떼에 대한 양들을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과 가정, 자녀와 노후의 미래까지... 제 마음을 짓누르는 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지치게 하며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후,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3) 회복 -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셋째 날 말씀은 제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 현실에 안주한 모습, 죄로 인해 마음의 균형을 잃은 모습, 지식은 많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시듯, 다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4) 동행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4)

넷째 날, 목사님은 고난을 축복·영광·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고난의 순간마다 불평하고 낙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구나”라는 고백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로는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서, 저는 오늘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5) 역전 -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시편 23:5)

다섯째 날 말씀을 통해 저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축제를 여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은 주님만을 붙드는 데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6) 축제 -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6)

마지막 날,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소망·사랑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여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하루하루도 주님 안에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해 저는 다시금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처한 환경에 눌려 하나님

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염려 대신 신뢰 하며, 불안 대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려도, 주님만은 변함없이 나의 목자 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지구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김은찬 성도

분당 1캠 천제 목장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1캠 천제 목장에 김은찬 목장원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특새 현장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매일 스케줄이 너무 많고,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잘 것 같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담당하신 전도사님의 따뜻한 권면을 통해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 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제게는 유난히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비전 속에서의 고난이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는 감사가 사라진 염려의 기도가 되어, 그저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나아간 특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추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셨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어떤 빛나는 꽃도 비에 젖으며 피어납니다. 저 역시 흔들리고 눈물 흘리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새벽예배를 통해 빛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야겠다는 결단과 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를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하나님은 나의 잔존가치입니다



정채은 부목자

수지 대학지구 1캠퍼스 브엘 목장

“하나님은 나의 _이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빈칸을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목사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첫째 날,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건 빛과 소금, 진리 등 설교 시간에 접하던 익숙한 표현들뿐이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만의 정의를 바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주간 동안은 그동안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임했습니다.

저는 20대의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면서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래 남을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도 내게 의미 있을까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 경험이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근원은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ய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가치도 줄어들지만, 하나님만은 처음 그 사랑 그대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주셨고 두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특새 예배가 끝난 후, 저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확신과 함께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음에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존가치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단 하나의 가치, 그분의 사랑과 무한함은 어떤 지표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제 삶은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경험으로 채워지며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해 주시고 참된 가치를 상기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끝에서 시작하시는 주님



지유은

분당채플 찬양팀 고2

고등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영접한 후, 제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예배에 대한 갈망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작년, 18년 동안 습관처럼 드려 왔던 주일예배 외에 저의 의지로 처음 나아간 예배가 바로 2주간 진행된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 신앙은 큰 도약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제가 품은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입시 과정을 거치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 뜻을 제 삶 속에 적용하여 흠이 없고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상처받을 만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았고, 큰 굴곡 없이 안정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고 온전히 따른다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깨달자’는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설교를 통해 저에게 가장 완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든 길이 결국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언제나 최상의 것을 허락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불확실함은 확신으로 바뀌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제게 선택의 자유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더 이상 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늘 원망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지난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제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인생의 본질이 고난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축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고난 또한 행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어, 더 이상 오늘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일주일 동안 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작은 순종, 큰 기쁨



장혜린

수지채플 10시 중1마을

이번 추수감사 새벽예배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가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갈 자신도 없었고, 귀찮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졸린 눈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평소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이번 새벽기도회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이라는 기도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점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일도 익숙해지고, 예배에도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씀은 담임목사님께서 첫째 날 전해 주신 “다윗은 누구보다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특송 시간에 한 여성 소프라노분이 밝은 미소로 찬양하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녀의 찬양을 보며 ‘저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셨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에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라도 예배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신앙이 깊지 않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기 위해 앞으로도 새벽기도회에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벽기도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먼저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구촌**

특별새벽기도 이야기 속의 주인공



안지우

어린이지구 수지 소년 1마을 6학년

**“엄마, 저 꼭 깨워 주셔야 해요. 꼭이에요~ 진짜 꼭이에요!
제가 못 일어나도 일어날 때까지 깨워 주셔야 해요, 알겠죠?”**

핸드폰 시계로 알람을 맞춰 놓으면서 저는 엄마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3학년 때부터 지구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예배를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상쾌한 새벽공기랑 쌀쌀한 날씨에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참여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때 엄마가 이번이 네가 초등학교생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특새인데 한번 완주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특새 완주해서 정근상 탈거야! 나보다 어린 동생들도 다 하던데, 나도 할수있어!’

특새 첫날,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지만, 예배당에 나온 제 모습이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벽예배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었고, 평소에 외우던 말씀이라서 더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웬지 이번 특새 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담임목사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며 설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말씀 내용이 정말 재미있었고, 잘 이해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두려움을 없애 주고, 서로의 다툼도 막아 주고, 파리떼 같은 걱정도 쫓아 준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양은 한번 믿은 목자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사소한 것들로 걱정하고 있다며, “적어도 양에게는 지지 말자!” 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저는 수요일까지 해야 할 수학숙제가 11장이나 남아 있어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기고 새벽예배를 드린 나를 설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피곤하지 않아서, 학교 다녀온 뒤 틈틈이 숙제를 해서 수요일까지 모든 숙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은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그랬는지 목요일부터 배가 살살 아팠는데 이제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픈 몸으로 겨우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꼭 잠고 새벽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찬양 도중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진정된 뒤 나와 보니 화장실에 있었던 사이에 예배당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5층으로 엄마와 함께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왠지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피곤해도 이번 주 특새 다 참여해서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 지각도 안 하고, 학원도 하나도 안 빠지고, 숙제도 다했는데… 왜 하필 오늘 아픈거야?’ 그때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언젠가 고난은 다 지나가고 나의 삶에 평화로운 날들만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언니 오빠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도록 축복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픈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축복기도를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시는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하루를 푹 쉬 덕분에, 토요일에는 다시 좋은 컨디션으로 특새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축제처럼 기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를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나의 목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숙제가 있어도 해낼 수 있는 손과 머리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파도 이겨 낼 면역과 진료받을 병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의 아빠, 소망의 엄마, 사랑의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구촌

특별새벽기도회 미션 성공



장혜연

어린이지구 수지 소년 1마을 5학년

제가 새벽예배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막상 새벽예배에 나와 보니 생각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피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처럼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보니 다른 성도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쉬운성경).

저는 평소에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새벽예배를 드리며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기쁨의 감사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강원

어린이지구 수지 유년 1마을 2학년

제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듣고 나니,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가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 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기도뿐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도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사기도를 드리면 더 오래, 기쁘게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었고, 감사의 기도도 배우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구촌**

함께 자라가는 교회



최철준 목사

나주글로벌교회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데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라마는
 多情(다정)도 病(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배꽃에 달이 밝게 비치고 은하수가 흐르는 깊은 밤에
 가지 하나에 깃든 봄의 마음을 두견새가 알겠나만은
 다정한 것도 병이 되어 잠 못 들어 하노라

고려시대 이조년이 쓴 시의 “배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의 밤”처럼 저는 배꽃이 가득한 나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철준 목사입니다. 나주에는 배나무가 참 많습니다. 배나무의 배꽃은 매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많은 교회가 있지

만 지구촌교회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호남에 흘려보내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하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달밤 같아도 지구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달빛에 배꽃이 환한 밤처럼 기쁘고 고요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가자’였습니다. 그동안 지구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가급적 ‘지구촌교회를 멀리 떠나 지구촌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그 마음도 새로워 집니다. 낯선 땅, 각기 다른 배경이 모인 사람들, 지방의 열악함을 몸소 맞닥뜨리며 내가 참 교만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기업이 많은 혁신 도시여서 젊은 세대들이 많지만 승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거쳐 가는 지방의 현실에 점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이는 현실일 뿐,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씀으로 주의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전교인 수련회 10.18~19)

제가 어떻게 이 곳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벅차 옵니다. 여기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영혼들과 만나지 못했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 도시와 사람들을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함께 자라가길 애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2).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기회와 은사를 활용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시간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구촌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며 받은 훈련대로 예배와 목장교회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생명, 새가족, 목장교회, 영성큐티, 중보기도, 전도폭발 훈련, 제자 훈련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국내전도와 해외선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구촌교회와 연합해서 진도 국내선교와 태국선교를 다녀와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주와 광주 지역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사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원 원로목사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훌륭한 김우준 담임목사님을 통해 지구촌교회가 더욱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믿고 응원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나주에서도 글로벌지구촌교회가 모교회처럼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신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교회의 자랑스러운 동역교회로 글로벌지구촌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따뜻한 응원과 기도의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섬김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

지구촌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30명이 함께 맛있는 빵을 만드는 ‘뜨랑슈아 베이커리’는 토요일에도 평일 못지않게 분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운영상 소수의 장애·비장애 직원들만 출근하는 주말에는, 이른 새벽부터 반죽하고 굽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에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새벽,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구촌뉴스와 주보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꺼이 일터로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함께한 그 섬김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일터를 지켜 주는 든든한 동역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벽을 밝힌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며, 사랑으로 빚어진 빵, 정성으로 구워진 마음 덕분에 이른 아침의 ‘뜨랑슈아 베이커리’는 더욱 따뜻한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눔은 기술이 되고, 섬김은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

“처음에는 어떤 장애인분들이 근로하고 있을까, 과연 빵 만드는 일은 잘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만한 마음과 달리, 모든 일을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깨달음과 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 하나하나가 큰 축복이자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수지 5지구 요엘8 이경진



“늘 봉사는 특별한 은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 #수지 2지구 5마을 참포도나무 2목장 윤미정, 분당 1지구 위례 2목장 송윤희

[아침을 여는 섬김의 기쁨]

“봉사활동은 새벽기도와 같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피곤하지만,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큰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끼며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금 주저하는 분들도 함께하시면, 그 기쁨과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요!”

- #분당 14지구 5성령의 목장 김영숙, 김춘란, 이미애, 정정희

[가족 같은 공동체, 함께 하는 기쁨]

“뜨랑슈아 베이커리 빵 포장 봉사에는 ‘함께’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과 교회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가슴속으로 가족 같은 정이 느껴집니다. 작은 손길이 공동체 전체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 #수지 6지구 우하하 목장 강정미, 신문복, 민지혜, 이금형, 전인숙



[작은 빛이 모여 큰 빛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14)고 말씀하셨듯이, 뜨랑슈아 베이커리에서 작은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영향력으로 흘러갑니다. 빵 하나하나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정성과 봉사자들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이며, 세상에 전하는 작은 빛입니다.

뜨랑슈아 베이커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은 손길이 큰 기쁨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지구촌**

(봉사 문의:031-265-9941)

2025. 11. 8(토) - 2025. 11.28(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트랑슈아 카페 내

이경림 작가 개인전 - Relation



작품1) Relation
116.8×80.3cm oil on canvas, 2024



작품2) Relation
72.7×53cm oil on canvas, 2024

작가는 신과의 수직적 관계, 타자(他者)와의 수평적 관계, 그 공존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화면에서 탐구한다. 묵직하고 두터운 질감은 관계의 무게를, 교차하는 선의 곁은 복잡한 감정의 얽힘을 드러낸다. 경계를 허물며 용서와 이해를 표현하고, 겹겹이 쌓인 색의 층위는 관계가 남긴 흔적과 긴장감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교차하는 색채와 선의 곁은 관객의 내면에 잠든 관계의 기억을 부드럽게 일깨우길 기대한다. **지구촌**



- 서양화 전공
- 개인전 9회(라메르갤러리, AP갤러리, 안산 미술관 등)
- 아트페어 8회(뱅크아트페어, 경남국제아트페어 등)
- 단체전 160여 회(예술의전당, 인사아트센터, 라메르갤러리 등)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현대미술대전 입선, 가야미술대전 특선, 경기미술대전 입선, 화화대상전 특선, 미협이사장상, 평화미술대전 도미니카대상 등 다수
- 한국미협, 용인미협, 국제현대미협, 현대여성미협, 용인여성작가회 운영위원, 현작회, 와유회 이사

림화실 운영(작품문의 010-2751-3685)

인공지능 시대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 : AI의 이해와 활용 (4)

- AI,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차동혁A 장로

분당 9지구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초래할 몇 가지의 사회적 변화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AI 시대, 일자리의 미래 :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다

많은 사람들이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구조 재편'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AI 기술의 발전으로 9,2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되고, 동시에 기술 혁신으로 1억 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자리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입니다. 데이터 입력, 고객 상담(챗봇), 단순 사무 처리, 기본적인 코딩 작업, 금융 보고서 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조 및 물류 분야에서는 로봇과 AI가 결합된 물리적 AI(Physical AI)의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I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인프라 및 개발자 : AI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인간-AI 협업 전문가, AI 윤리 및 거버넌스 전문가 등 AI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 :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성, 공감 능력, 또는 고도

의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거나, 섬세한 인간적 교류가 필요한 직업(예: 예술 치료사, 심리 상담사, 고위 경영진 등)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태도를 OpenAI사의 샘 올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I 기술의 활용 능력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발맞춰 지속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AI 도구를 익히고 활용해나가야 합니다.

적응력과 회복탄력성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과,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회복탄력성이 요구됩니다.

창의성과 인간적 가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 AI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 등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3. AI 윤리 : AI의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

AI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편향성(Bias)과 차별의 문제

AI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에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편견이 담겨있다면 (예 : 인종, 성별, 경제적 편향 등) AI는 이러한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심지어 증폭시켜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I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AI의 결정이 중대한 과실을 초래했을 때(예 : 자율주행차의 사고, AI 기반 의료 진단의 오진 등)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AI의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개발자나 사용자와 같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의 확산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 음성, 영상

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정치적 조작, 명예 훼손, 사기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정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AI가 그럴듯하게 생산하는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감시 사회의 위험

AI는 개인의 행동 패턴, 소비 습관,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권력을 가진 주체에 의해 악용되어 감시 사회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에 대한 통제와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4. AI와 저작권 논란 : 창작과 표현의 경계

AI가 생성한 결과의 저작권

AI가 순식간에 그려낸 멋진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의 기준에 따르면, AI는 인간 창작자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인정되므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표현의 핵심 요소를 생성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AI 생성물의 출처 명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기(출처 표기)하는 윤리적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당 정보의 성격과 신뢰 수준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콘텐츠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AI를 활용한 모든 창작물에 대한 출처 명기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던지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인 일자리, 윤리,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부작용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의 책임도 요구합니다. 앞으로 AI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며,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AI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참고]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자가 글의 논점과 구성을 정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였고, 이 프롬프트로 생성형 AI의 심층연구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관련 자료를 검색, 요약하여서 이 글의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최종적인 글의 구성과 내용, 참고자료의 확인은 저자가 직접 하였습니다.



허니 갈릭 오렌지 치킨

따뜻하고 향긋하고 진한 맛의 따뜻한 치킨요리가 속을 든든히 채워 줘요.

재료(약 3인분)

닭 안심or가슴살 350g, 오렌지1개, 로즈마리 약간(2-3줄기)

소스 : 다진마늘 20g, 꿀 80g, 간장 50g, 다진생강 6g, 식초10g, 청주or청하 30g, 물140g, 옥수수전분물(전분4g:물4g)

레시피

1. 볼에 닭고기를 넣고 전분물 제외한 모든 소스재료를 다 넣고 30분~하루 재워 주세요.
2. 깨끗이 세척한 오렌지는 0.5cm 정도의 두께로 슬라이스 해 주세요.
3. 중간 불에 팬을 올려 재워 둔 고기를 모두 넣고 오렌지, 로즈마리 넣어 준 후 뚜껑을 닫아 익혀 주세요.
4. 소스가 적당히 졸고 원하는 간이 되면 닭고기를 잠시 건져 놓고 잘 섞은 전분물을 팬에 넣고 잘 섞은 전분물을 팬에 넣어 잘 풀어 주세요. 소스에 점도가 생기면 닭고기를 다시 넣고 한 번 더 바르르 끓여 주시면 완성.

플레이팅 Tip. 접시에 담은 후 생로즈마리와 생오렌지를 조금 올려 주면 요리의 색감이 예뻐져요



‘가짜 슬픔, 가짜 눈물 주의보’

우리는 살아갈 때 슬픔과 눈물을 반드시 마주쳐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이고 그 감정을 나타내는 소중한 표현 방식이에요.
슬픔 속을 지날 때에만 깊숙이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거짓된 감정에 속을 때가 참 많다는 거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릴 끊임없이 속여서
슬프지 않아도 될 일에 슬프라고 해요.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울라고 해요.
이 전략에 속지 않는 비결은 ‘잠잠히 말씀 앞에 머물기’예요.
그러면 거뜬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울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일에 울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슬플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일에 슬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더 기쁨으로, 더 웃음으로 삶을 채울 수 있게 돼요.

십자가 능력,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가짜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주신 것들 모두 풍성히 누리며 환희로 채우는 우리의 11월로 함께 빛어 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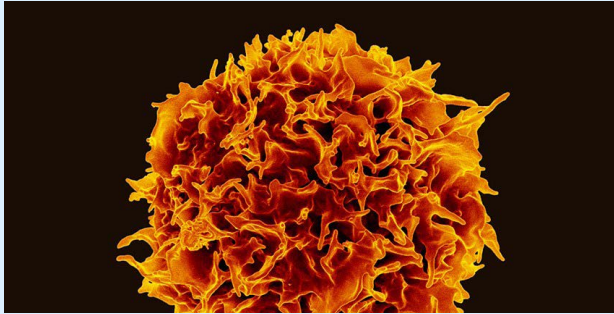
지구촌



이단비 목자 청년1지구 여호수아촌 빛진자목장

도서 '최강의 레시피'(저자 데이브아프리) 전체 감수&비주얼디렉팅 / AK플라자 제철식재료
레시피 연재(레시피&사진&영상) / '곤트란쉐리에' 브런치 메뉴개발
인스타그램 foodstylistdanb 이메일 danbione1@naver.com

면역항암요법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다



T세포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 (원 흑백 이미지를 컬러 처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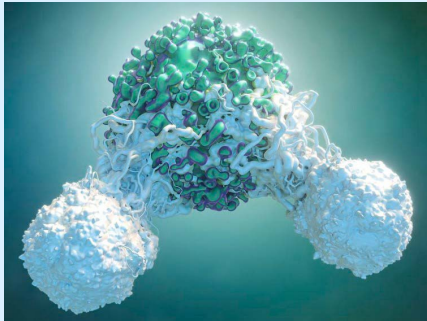
한눈에 간단히 내용 보기:

- STUB1이라는 단백질은 면역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신호를 차단하여 T세포의 암세포 살상 능력을 약화시킨다.
- 실험실적으로 STUB1을 비활성화하면 T세포가 면역 증강 분자인 IL-27에 반응하는 것이 강화되어 종양 성장이 느려지고 생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
- 이 연구 발견은 더 많은 환자에게 면역항암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의 문을 열어 준다.

현존하는 면역항암요법 치료제들의 대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견을 통하여 하버드 의과 대학의 과학자들은 인체의 핵심 면역세포인 T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새로운 분자 브레이크를 확인하였다.

저명한 면역학 학술지인 Nature Immunology에 지난 8월 12일 온라인으로 게재되고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아 수행된 이 연구는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법을 설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현재의 면역항암요법들은 이것으로 치료 받은 사람들 중 절반 미만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생쥐 생체 실험과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STUB1이라는 단백질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 체계의 최정예 병사인 CD8⁺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 단백질은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면역 신호전달 분자 수용체(immune-signaling receptor)들, 특히 T세포의 강력한 항종양 반응(anti-tumor response)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IL-27이라는 단백질 분자의 수용체를 방해함으로써 이러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연구진은 STUB1단백질을 차단하면 암 면역 치료법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암 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흰색) 모식도

“면역항암요법들이 암의 치료방식을 혁신했지만, 생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법들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본 연구의 주저자(主著者)인 마틴 라플러 박사는 말했다.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 블라바트니크 연구소 교수이자 면역항암요법의 선구자인 아를린 샤프 교수* 연구실의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이다. “우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표적을 찾기 위해 가능한 치료 표적들을 파악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우리의 연구결과 그리고 더 폭넓게 말하자면 아주 효율적인 유전자 편집 도구(CRISPR 스크리닝)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 하버드대학교는 연구 업적이 아주 탁월한 교수들에게 최고의 영예로서 University Professor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한다. 아를린 샤프 교수는 Kolokotronis University Professor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도 연구 강연을 한 바 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도구인 CRISPR를 사용하여 약 9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CD8⁺ T 세포의 종양 공격 효과를 저해하는 유전자들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STUB1 이라는 유전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CD8⁺ T세포에서 이 유전자를 제거하자, T세포의 종양 공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STUB1단백질이 결여된 T세포를 보유한 생쥐들은 개조하지 않은 그대로의 T세포를 보유한 생쥐들보다 암의 성장 속도가 더 느리고 수명이 더 길었다.

STUB1단백질은 T 세포가 사이토카인(cytokine)이라고 불리는 면역 증강 단백질 분자로 부터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 신호에 반응하는 T세포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나타났다. 이 연구는 STUB1단백질이 CHIC2라는 또 하나의 단백질과 맞물려 T세포의 암세포 공격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UB1단백질과 CHIC2단백질이 상호작용하면 T세포 표면의 핵심 수용체들이 제거되어,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 보내는 면역 활성화 신호에 민감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STUB1단백질과 CHIC2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암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 반응을 강화하고 새로운 암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가 차세대 암 치료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주로 생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연구진은 동일한 과정이 인간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고 말한다. 별도로 진행된 일련의 실험들은 인간 T세포에서 STUB1 또는 CHIC2를 제거할 경우 T세포 표면의 사이토카인 수용체 레벨이 증가한 것을 보였으며, 이는 그들이 생쥐에서 관찰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하게, 금년 2월 저명한 학술지 Nature에 출판된 한 연구에서 사이토카인들 중의 하나인 IL-27라고 불리는 사이토카인이 암 환자들에서 세포독성 T세포(killer T cell) 및 면역 치료 반응의 향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연구자들을 STUB1이 저해되면 IL-27 신호전달이 촉진되고 인간의 종양 면역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인도한다.

이 연구발견은 종양치료약물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기반의 접근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적으로 STUB1가 결여된 T세포를 만드는 것은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STUB1은 T세포에서뿐만 아니라 인체에 광범위하게 발현

되므로 STUB1을 T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인체 전반에 걸친 STUB1 저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독성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T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면역 치료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갭(gap)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과학자들은 T세포가 강력한 항종양 반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결정적인 신호들을 알지는 못한다.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STUB1이 초기 T세포 반응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신호전달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IL-27이 T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둘째, 연구자들은 STUB1을 차단하는 것은 두 가지 면— 1) 종양을 T세포에 의한 사멸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과, 2) T세포의 항암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치료적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라플러 박사는 “STUB1 저해는 단독 요법으로, 또는 기존 암 치료법과의 병용 요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했다. “STUB1이 초기 T세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T세포 반응 후기에 작용하는 다른 치료법과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STUB1단백질 저해의 인간에서 적용 가망성, 치료효과, 그리고 안전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 발견은 면역 체계가 암과 싸우는 방식과 과학자들이 어떻게 면역 체계가 암과 더 효율적으로 싸우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구촌**

— 2025년 9월 1일 자 하버드 의과대학 뉴스

세상중보의길 세미나

금-토
2일과정

11/14(금) 오후 7시 & 11/15(토) 오전 9시~오후 6시
분당 그레이스홀



강 사 | 채정일 목사, 유대연 목사 외

등 록 | 수지, 분당 등록센터, 온라인 www.jiguchon.or.kr/education

등 록 비 | 20,000원 등록마감 | 11/12(수) 오후 5시까지

문 의 | 교육훈련부 수지 031-270-8182, 분당 031-710-9417

* 11/16(주일, 정오 12시) 헌신서약식 참석바랍니다(필수)

* 세상 중보의 길 세미나 수강 이후, 약 16주간의 기도 헌신을 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 헌신은 주 1회, 1시간씩 진행됩니다.

*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 수지채플 | | 구 분 | 분당채플 | |
|-------|--------|------------------|-------|------------|
| 시 간 | 장 소 | | 시 간 | 장 소 |
| 08:00 | 본당(4층) | 1부 예배 | 08:00 | 본당(8층) |
| 10:00 | | 2부 예배 | 10:00 | |
| 12:00 | | 3부 예배 | 12:00 | |
| 14:00 | | 더함예배 장년/청년2/통일비전 | 14:00 | |
| 16:00 | |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 16:00 | |
| 05:30 | 본당(4층) | 새벽기도회 (월-토) | 05:30 | 그레이스홀(로비층) |
| 11:30 | | 수요예배 (수) | 11:30 | 본당(8층) |
| 20:30 | 본당(4층) | 파워웬스데이예배 (수) | 20:00 | |
| | | 20:30 | 20:30 | |
| 10:00 | 본당(4층) | 시니어예배 (금) | 10:00 | |

● 교육목장 주일예배

| | | | | |
|----------------|------|---------------------|----------------|------|
| 10:00 12:00 | 111호 | 영아촌 0세-36개월 (부모 동반) | 10:00 12:00 | 702호 |
| | 110호 | 유아촌 4세-5세 | | 701호 |
| | 208호 | 유치촌 6세-7세 | | 703호 |
| 14:00 | 110호 |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 14:00 | 701호 |
| 10:00 12:00 | 201호 | 유년촌 초1-초2 | 10:00 12:00 | 710호 |
| | 203호 | 초등촌 초3-초4 | | 711호 |
| | 207호 | 소년촌 초5-초6 | | 712호 |
| 14:00 | 201호 |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 14:00 | 712호 |
| 10:00 | 202호 | 중등마을 중2-중3 | 10:00 | 206호 |
| | 310호 | | | 210호 |
| 12:00 | 310호 | 중1-중3 | 12:00 | 206호 |
| 10:00 12:00 | 311호 | 고등마을 고1-고3 | 10:00 12:00 | 412호 |
| | | | | 209호 |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 | | | | |
|----------------------|------|--------------------|----------------|------------|
| 12:00 | 202호 | 아름예배 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 | 10:00 12:00 | 105호, 106호 |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 | 행복한동행 예배 | 12:00 | 102호(L층) |
| | | 수어 예배 | 10:00 | 102호(L층) |
| | | 14:00 | 본당(8층) | |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 | | | | | |
|----------------------|--------------|-------|------------|-----------------|--------------|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 영어 예배 | 장년 | 10:00 | 선교센터 (MD프라자) | 올네이션스홀 (B1층) |
| | | 청년 | 14:00 | | 다니엘홀(701호) |
| | | 청소년 | 10:00 | | 글로벌아홀(8층) |
| | | 어린이 | | | 햇빛마당홀(B1층) |
| | 미취학 | 14:00 | 소피아홀(8층) | | |
| | 일본어 예배 | | 햇빛마당홀(B1층) | | |
| | 일본어 주일학교 | 10:00 | 소피아홀(8층) | | |
| | 중국어 예배 | | 에스겔홀(7층) | | |
| | 중국어 주일학교 | 11:30 | 703호 | | |
| | 몽골어 예배 | 10:00 | 글로벌아홀(8층) | | |
| | 몽골어 주일학교 | | | | |
| | 이주자 예배 | 14:00 | | | |
| | 처인구 영어 장년 예배 | 13:30 | | | |
| 처인구 몽골어 예배 | 15:30 | | | | |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구 분 | 경기대채플 | | 필그림하우스 | | 구리지구촌채플 | |
|-------------|----------------|----------|--------|--------|---------|----------|
| | 시 간 | 장 소 | 시 간 | 장 소 | 시 간 | 장 소 |
| 1부 예배 | | | | | 08:00 | |
| 2부 예배 | 10:00 | | 09:20 | 갯세마네채플 | 10:00 | 5층, 본당 |
| 3부 예배 | 12:00 | 텔러컨벤션센터 | 11:00 | 카리타스채플 | 12:00 | |
| 4부 (젊은이) 예배 | | | | | 14:20 | |
| 청소년 예배 | 10:00 12:00 | 복지관B207호 | | | 10:00 | 6층, 615호 |
| 어린이 예배 | | 복지관B206호 | | | 12:00 | 6층, 614호 |
| 미취학 예배 | | 복지관B202호 | | | 12:00 | 6층, 616호 |
| 수요예배 | | | 19:00 | 갯세마네채플 | | |
| 금요비상기도회 | | | | | 20:30 | 5층, 본당 |
| 새벽기도 | | | | | 05:30 | |
| 토요기도회 | | | 19:00 | 갯세마네채플 | | |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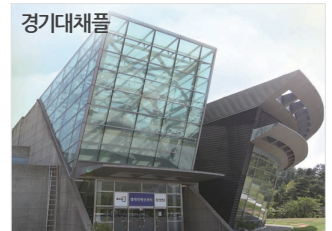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마로 52(MD프라자)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 1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 2 원고접수 게시판에
-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0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 | |
|-----|--|------------------|---|
| 인터넷 |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 라디오 |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20-9:50 |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ovejiguchon |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 CTS 화 오전 6:00 비전메시지, 화 오전 6:00 생명의 말씀 • CGN 화 오후 2:20(영어자막) • CBS 토 오전 6:30 • GoodTV 주일 오후 2:30 |

| 해외동역교회 | | |
|-----------|--|-------------------|
| 니이카타지구촌교회 | 639-2, Mako, Nishi-Ku, Nagata-Shi, Nagata, Japan | +81-25-201-8122 |
| 동경지구촌교회 | 169-0073 Tokyo-to, Shinjuku-ku, Hyakuninchi, 1 Chome-9-3, Japan | 0574-86987477 |
| 상해지구촌교회 |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 +86-186-2172-9613 |
| 해밀턴 지구촌교회 |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 +64-27-414-2777 |
| 호치민지구촌교회 |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 +84-8-2211-9951-2 |
| 오克兰지구촌교회 |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 +64-9-216-1177 |
| 닝보교회 | 1-11902, 338, ringhuang-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e, China | 0574-86987477 |
| 동역교회 | | |
| 고덕지구촌교회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15층 | 031-647-0110 |
| 기흥지구촌교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운로 217 (자곡동 456-2) | 031-283-7991 |
| 글로벌지구촌교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키아일랜드빌딩 3.4층 | 061-332-0191 |
| 대우지구촌교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현상가 3층 | 02-431-6458 |
| 다라이프지구촌교회 | 동탄채플 경기 화성시 동탄신호동 동탄신호대로 263번길 풍산맨션인티워 7층 광교채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 031-212-2291 |
| 더블래스트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7번길 45 5층 | 070-7699-9191 |
| 동백지구촌교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 9층 | 031-693-8291 |
| 동탄지구촌교회 | 경기 화성시 원곡매로 168-1(중동 44-4번지) | 031-8003-8253 |
| 관음지구촌교회 | 경기 화성시 동안 신민천로 414, 경서타워 7층 | 031-375-8891 |
| 만방생 목장교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운프라자 2층 202호 | 031-896-0300 |
| 민들레지구촌교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종백대로 448번길 96. 4층 | 070-7757-1201 |
| 세움지구촌교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네로 53번길 27-24(서천동 397-20) | 031-205-1191 |
| 신동탄 지구촌교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107 | 031-376-3055 |
| 영광지구촌교회 | 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2 1층 | 010-2555-4642 |
| 은시랑지구촌교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창철왕길6번길 8 (능평리) | 070-4119-5941 |

| 죽전지구촌교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 031-896-7070 |
|--------------|---|-----------------|
| 협력교회 | | |
|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 61-433-60-9191 |
| 뉴비전교회 |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 408-719-0000 |
| 뉴저지 지구촌교회 |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 +1-201-445-0191 |
| 늘기교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 031-978-0121 |
| 더사랑지구촌교회 |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40 | 051-415-0831 |
| 동안교회 |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 02-962-0727 |
| 라이프스프링교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이라프프라자 4층 | 032-831-3775 |
| 목동 지구촌교회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9 | 02-2647-0191 |
|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 25 Gamsey Ave. Bakersfield CA, 93309 | (346) 317-8766 |
| 세종지구촌교회 | 세종 장군면 대교길 117-15 | 044-862-1441 |
| 송탄중앙침례교회 |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 031-665-2995 |
| 시목교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 043-269-1941 |
| 시애틀 지구촌교회 |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 425-350-0191 |
|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 404-579-4570 |
| 영주침례교회 | 경북 영주시 명륜길 38 영주침례교회 | 054-634-2004 |
| 예일교회 | 부산 금정구 중곡대로 2008 | 051-518-4189 |
| 워싱턴지구촌교회 |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 301-460-1656 |
|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 033-748-0032 |
| 천안 지구촌교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길, 201호 | 041-523-1191 |
| 춘천침례교회 | 강원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 033-254-4059 |
| 함흥교회 |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 (571) 719-2592 |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편 23:6)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3살짜리 외손녀가 제집에 놀러간 내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살자.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편안한 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게 어린 아이의 마음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지구촌**

지구촌평생교육원

겨울학기 회원모집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4(월)

강의기간 : 2025. 12. 1(월) ~ 2026. 2. 27(금)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모바일)
<https://gmcedu.org>
방문접수 : 사전연락 후 가능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
지구촌교회 1층 107호



상담문의

전화상담 : 031-710-9313, 9317~18
카카오톡 채널상담 :  지구촌평생교육원 +
친구추가 후 1:1 채팅
운영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바로가기



지구촌평생교육원
GLOBAL MISSION EDUCATION